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http://www.daegu.jubo.or.kr



프라 안젤리코, 『성체를 모시는 사도들』(1441).
프레스코, 베네치아 성 마르코 대성당.

† 오늘의 전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 6,51-58 참조)

몸에 좋은 음식은 육신에 활력을 주지만, 참된 양식이신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우주의 임금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니 세상에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눈에도 마땅치 않아 보이는 이 보잘 것 없는 몸에 머무르러 오시겠습니까?

제1독서 잠언 9,1-6 **제2독서** 에페 5,15-20 **복음** 요한 6,51-58.

입당송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트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민락 라우렌시오 신부 | 두산본당 주임

두 달 전쯤, 두산 성당 앞에 있는 <푸른 평화>에서 유기농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이름이 ‘밥’에 가치를 두다입니다. 일명 ‘밥 가치’라고 써놓았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밥이 가지는 가치를 새롭게 생각해보자는 뜻일 것입니다.

밥이 가지는 최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빵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밥이나 빵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은 최고의 사랑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사랑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봉사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즉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애지욕기생(愛之欲其生)”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는 사람을 살리는데 있습니다.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죽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빵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생명의 빵을 먹은 우리도,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국수(國手) 조훈현이 쓴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에서 “가장 가난한 부모는 돈이 없는 부모가 아니라 물려줄 정신세계가 없는 부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정신을 받았고, 매일 미사성체를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의 일상 삶이 서로 살리는 마음을 통해서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참된 신앙인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시편 34,9)

믿음의 길

표징을 보는 눈

윤중리 가브리엘 | 정평본당



우리 본당 신자들은 요즘 성경 읽기에 폭 빠져 있다. 신부님이 한 주일에 두 번의 성독(聖讀, lectio divina) 그룹 지도를 하는 한편, 전 신자를 대상으로 매일 성경읽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수녀원의 성경학교엘 제법 오래 다녔으나, 다녀오면 가방을 던져 놓았다가 다음 주에 그대로 들고 가곤 하다 보니 성경에 대한 이해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가톨릭의 모든 교리와 전례가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본당의 성경읽기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다.

성경을 읽다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기적)들에 대한 것이다. 마땅히 단순하고 소박하게 믿어야 하겠지만 마음 한 구석에 ‘정말로 그랬을까?’하는 의구심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을 쉽게 씻어내지 못한다. 정말로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셨을까? 정말로 태생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 정말로 죽은 라자로를 살려내셨을까?

그럼에도 내게는 ‘이게 바로 주님의 표징이로구나.’ 하는 것을 언뜻 느꼈던 기억이 있다. 갈릴래아 호수의 배 위에서 애국가 연주를 들으며 태극기를 게양할 때,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 벽화 예수님 상 앞에 섰을 때, 요르단 강 예수님 세례 터 모자이크 위에 섰을 때, 예루살렘 예수님 무덤성당에 들어섰을 때, 저 동북아시아 작은 반도의 어느 구석에 사는 무명의 한 사나이가 이럴 수 있다는 게 바로 주님의 표징 아니라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형틀이었던 십자가나무가 인류 구원의 빛이 되었다는 것도, 어두운 하늘에서 별이 빛나는 것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도, 바짝 마른 씨앗에서 생명이 싹트는 것도 모두가 주님의 권능에 의한 표징들임을 짐작한다.

내가 어렸을 때, 여름방학이면 동생과 함께 동네 뒷산으로 도라지를 캐러 가곤 했었다. 내가 작은 바구니에 그득하게 깔 때까지 같은 산을 함께 돌아다니고도 동생은 도라지를 몇 뿌리밖에 캐지 못했다. 도라지와 잡초를 구별할 줄을 몰랐던 것이다. 주님의 은총이 어떤 표징으로 나타나는가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볼 줄 아는 눈,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표징은 성경책의 갈피 속에 시들어 숨어있는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다. 성경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그것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를 일이다. **필문**

이달의 성인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본보기 성녀 모니카

(과부, 증거자, 332~387년, 축일: 8월 27일)



에디슨, 안데르센, 아인슈타인, 베토벤, 김구...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인들 뒤에는 어김없이 훌륭한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열정과 인내를 갖고 자식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었던 어머니. 꿈과 인생의 목표를 심어주고 그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어머니. 때론 스스로를 절제하고 낙담하지 않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천주교 성인들 가운데에도 계십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들 중 한 분이며 ‘은총의 박사’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어머니이신 모니카 성녀가 바로 그 분이십니다.

성녀께서는 이교도인인 남편과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셨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난폭한 남편과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한결같은 정성으로 극진히 봉양하며 끊임없는 기도와 인내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가톨릭으로 개종시켰습니다. 그러나 착실한 두 자녀와는 달리

향락을 일삼으며 마니교에 빠진 장남 아우구스티노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로마로 도망친 아들을 찾아 밀라노까지 간 성녀께서는 그 곳에서 암브로시오 성인을 만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들의 회개를 위해 눈물로 도움을 간청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자녀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라는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 더욱 열심히 기도하신 성녀께서는 387년 부활절, 마침내 17년 동안의 긴 기도와 희생을 통해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모든 이단과 그릇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세를 받게 하셨습니다.

얼마 후 성녀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모든 희망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들에게 전하며 병석에 눕게 되었고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세례를 받은 그 해 55세의 나이로 선종하셨습니다.

오늘날 비신자 가정으로 출가하여 종교문제로 충돌을 빚으며 특히, 자식문제로 가슴아파하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모니카 성녀의 순종과 온유함, 인내와 사랑의 삶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모니카 성녀께서는 가톨릭 여성 단체의 수호 성인이자 그리스도교 어머니상의 모범으로 높은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가톨릭**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어린이의 빛이 되신 선생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에는 몬테소리라는 말이 붙은 유아교육과 관련된 책이나 도구가 한 두 개쯤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탈리아 최초의 여의사이며 심리학자, 아동 교육자였던 마리아 몬테소리(1870-1952)의 이름을 딴 것으로 그녀가 개발한 교육방법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총명했던 마리아 몬테소리는 여성이라는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정신지체아를 치료하던 가운데 의학적 치료보다는 교육의 절실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어 다시 교육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를 잠재력이 풍부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주입식 체벌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깨우치고 배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몬테소

리 교육법을 개발하여 1907년 로마 근교의 빈민지역에 ‘카사 데 밤비니’ 즉, 이탈리아어로 어린이집이라 이름 붙여진 탁아소를 열고 이른바 몬테소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성과는 점차 입소문을 타고 세상에 알려져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어린이들도 미사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함을 증명했으며 1929년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적용된 몬테소리 신앙교육에 관한 저서 『교회 안의 어린이』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여러 번 올랐으나 이 모두가 어린이들이 보여준 것이라며 상을 양보하기도 하였습니다.

1952년에 선종한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나의 친애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인류와 세계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궤문**

금주의 성인

8월 16일	성녀 베아트릭스(동정녀, 설립자, 실바, 1424~1490년), 성 티토(부제, 순교자, 로마, 410년경) 성녀 세레나 아우구스타(황후, 로마, 290년), 성 심플리치아노(주교, 밀라노, 400년) 성 스테파노(왕, 헝가리, 970~1038년), 성 로코(평신도, 증거자, 1295~1378년)
8월 17일	성 리베라토(수도원장, 순교자, 카프사, 483년) 성 히야친토(신부, 선교사, 크라쿠프, 1185~1257년)
8월 18일	성 라우로(석공, 순교자, 2세기), 성 아카피토(순교자, 팔레스트리나, 274년) 성녀 헬레나(황후, 250~330년)
8월 19일	성 루도비꼬(주교, 툴루즈, 1274~1297년), 성 모크타(수도원장, 주교, 라우스, 445~535년) 성 식스토 3세(교황, 440년경), 성 베르톨포(수도원장, 보비오, 640년)
8월 20일	성 루치오(원로원, 의원, 순교자, 311년), 성 사무엘(구약인물, 예언자, BC 11세기) 성 베르나르도(수도원장, 교회학자, 신학자, 클레르보, 1090~1153년)
8월 21일	성 룩소리오(군인, 순교자, 303년), 성 아브라함(수도원장, 스몰렌스크, 1221년) 성 비오 10세(교황, 1835~1914년), 성 시도니오(주교, 클레르몽, 480년)
8월 22일	성녀 안투사(순교자, 셀레우키아, 257년)

■ 2015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8월 4일(화) 오후 6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5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오프닝 행사에 참석하셨다. 대주교님께서는 축사를 통해 “12개 교구의 가톨릭미술가협회 회원들이 미술을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신앙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 <빛>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33주간, 2015. 8. 16~8.22.>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사56-58장	59-60장	61-64장	65-66장	예레1-3장	4-6장	7-9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예레미야기』

-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백성에 대한 고발과 단죄 그리고 징벌 당하는 백성의 고통(1-10장)
- 예언자로서 겪어야 하는 고통 앞에서 느끼는 자기 비하와 연민, 박해자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 요청, 예언자의 소명을 맡기신 하느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11-20장)
- 이스라엘의 정치·종교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종교적·윤리적 타락에 대해 비판적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겪은 총체적 갈등(21-29장)
- 흩어져 박해를 받고 있는 하느님 백성과 땅의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30-45장)
-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신탁은 세상 모든 민족들과 역사에 대한 하느님의 주권(46-52장)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너 힘이 아년...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17일(월) 10:30 범어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8월 17일(월) 11:00 순례자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8월 17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20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7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22일(토) 10:00 월성성당

대리구 소식

영적리더십을 위한 느헤미야영성학교

기간: 9.10~12.10(매주 목) 14강좌
 시간: 19:00~21:00, 월성성당 문화관
 수강료: 5만 원(교재비 포함) 선착순
 강사: 김병수(안드레아)
 문의: 3대리구청, 641-5678

성소 | 피정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 모임

일자: 8.22(토)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대상: 의료봉사에 관심있는 젊은이
 문의: (010)3800-1579
 vocationoh@hanmail.net

LD와 함께하는 3차 신약성경 통독 피정

기간: 9.5(토) 13:30~6(일) 17:00
 장소: 베네딕도영성관 / 마감: 8.26(수)
 입금: 대구 508-11-836412-0(한상숙)
 주관: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 현시, 미사, 안수)

일자: 8.19(수) 13:00~16:30
 지도: 강요셉 신부
 장소: 삼덕성당, 422-6691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8.21(금) 23:00~23(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출발: 시민회관 1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카타리나, (010)4515-1114

수도원에서의 문학 치유 피정

기간: 9.18(금) 15:00~20(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피정의집
 강사: 구자명(작가), 오윤교고진석 신부
 김의규(화가) / 1인 1실, 19만 원
 문의: (054)971-0722

교육 | 모집

자연 in 베네딕도 청년 축제

기간: 8.29(토)~30(일)
 장소: 툃핑포교베네딕도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8519-3431 / (010)9347-3431

18회 대학생 해외 영어연수 · 해외봉사

기간: 2차 8.29 / 3차 10.3 (8주 이상)
 국가: 필리핀, 캐나다
 특징: 영어연수, 해외봉사 인증서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이상재 신부와 함께하는 크루즈 순례

기간: 11.5(목)~18(수) 13박 14일
 장소: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비용: 내측 538만 원부터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베네딕도성경학교 심화(2년) 신입생 모집

개강: 9.7(매주 월) 10:00, 19:30
 장소: 베네딕도교육관(사수동800번지)
 내용: 시편
 대상: 성경 일반과정을 이수하신 분
 문의: 313-3050 / (010)7185-3431

17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신규교육 모집

기간: 9.14(월)~15(화)
 입금선착순 30명 / 3만 원
 대구은행: 508-10-349316-9(장혜자)
 문의: 대구파티마병원 940-7517, 940-7415(입금 후 전화)

인천교구 마리시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 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24평형 계약중, 35평형 마감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장소: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BL 비엘성형외과피부과
 BL Plastic Surgery & Dermatology
 10명의 분야별 전문의 진료
 ☎ 053-600-1000 www.bl.or.kr
 대구 중구 동성로 CGV합일 (구 환일극장) 5.6.13층

HS 의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상위 1%의 품, 학습무기를 준비하라!
UP 학습코칭
 · 공부방법 특강 · 분석독서코칭(비,문학)
 · 시험코칭 · 다중지능/적성검사/상담
 윤 종 선 (가필로)
 ☎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UP학습코칭 검색

발아플랜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시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외)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미소나라 미소나라
 미소나라 출장뷔페
 에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에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보혈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여성성형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시청방향 사이
 (맞은편 통일주사당 무로)
 ☎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 · 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8월 22일(토)은
(故) 이형문(안토니오) 신부님
선종 2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제40회 교구장기 테니스대회

일시: 10.9(금) 9:00 개회식
장소: 대구가톨릭대 효성교정 테니스장
마감: 8.28(금)
문의: 교구 사무국, 250-3057

1대리구 가정위원장, 가정위원 교육

일시: 8.30(일) 14:00~17: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
대상: 각 본당 가정위원장, 가정위원
주관: 교구 가정담당, 250-3114

대구평화방송 개국19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9.11(금) 19:30, 수성아트피아
출연: 가톨릭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동우, 웅산, 김동섭, 김은주
가톨릭연합합창단 / 2만 원
신청: 티켓링크, 251-2610

22차 외식산업 성공전략 심포지움

일시: 8.18(화) 14:00, 감삼동 강당(무료)
내용: 2015 트렌드 기법 활용 메뉴 개발
대상: 외식식품 경영자, 관리자, 창업예정자
주최: 대구가톨릭대 보건과학대학원
문의: 850-3177, www.oesikceo.com

교육 | 모집

송창현(미카엘) 신부의 신앙 특강

일시: 8.26(수)~28(금) 20:00
장소: 월배본당
주제: 26(수) 성경의 정의와 평화
27(목)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28(금) 함께 아파하기의 영성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평신도신학교육원 성경신학과정 수강생 모집

교리교수법, 그리스도론, 영성신학, 성경입문, 신구약성경과정, 행복한 영화 읽기, 민중신심과 전례신심, 이콘, 웰다잉, 에니어그램 등 / 개강: 9월 첫째주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가톨릭여성교육관 9월 강좌 모집

필라테스, 오카리나, 심리상담사2급, 홈아트, 회화, 가곡성가, 발성법, 수지침, 하모니카, 미술심리상담2급, 왕초보관광영어, 제대꽃꽂이, 장구
신청: 254-6115(성모당 내)

이관배 신부의 성경집중 특강(9개월)

2차(총9차): 8.28(금) 17:00~30(일)
매월 3째주 실시예정 / 10만 원
장소: 미리내성지 내 묵상의 집
내용: 역사서
문의: (010)5660-1170(문자접수 가능)

대구시립희망원 치과진료 봉사자 모집

일시: 매주 월~금 중 가능한 시간
내용: 희망원 생활인 치료, 보철진료
대상: 치과 의사, 치위생사
문의: 631-5985 / (010)3810-9859

프란치스카눔 시낭송 회원 모집

일시: 9.9(수) 10:30 / 선착순 12명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수도원 뒤)
문의: (070)4266-0047

프란치스칸 영성학교 1학기 모집

일시: 9.19(토) 14:00~17:00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주제: 왜 인간은 신을 찾는가?
강사: 김찬선(레오나르도) 수사 신부
문의: 재속프란치스코회, 632-9800

채용 | 안내

교구청 관리국 여직원(경리직) 채용

자격: 전문대졸 이상, 30세 이하 1명
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성적증명서
마감: 8.18(화) / 제출장소: 관리국
문의: 교구 관리국, 250-301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광천 이조맛김
시골향정액영품 김
김·건어물·정갈류 판매
성전간접기름 미연 및 바지의 성모와·지모회 등 각종 단체 기증모음
전 영 진(바오로) 010-4192-5655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053-255-3836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타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성모님발연 성씨순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12박 13일)
출발일: 9월 2일 (출발확정)
T. (053)253-3399
☎ (주)성씨여행 조 협 레(유스티노) 흥 미 회(안젤라)

국비지원/무시험/국가자격 장례지도사
주간 10월 2일~11월 30일
65세 이하, 남녀/학력 무관
대가대장례교육원 **T.555-4404**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역기(배오로) **011-514-3855**

新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전문 김 정 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